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2일 월요일 음 2월 8일 (조금)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흐리다가 차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7-8°C. 낮 최고 기온은 9-14°C의 분포를 보일 것이다. 제주도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조업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precipitation and cloud cover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rise and moonset times, and day/night lengths.

주간예보

Table with 3-day weather forecast including temperature and cloud cover.

생활·안전 기상정보

Table with UV index, visibility, and other safety-related weather information.

월드뉴스

美, 대구 '여행 금지'... 한국 '여행 재고'

출국 전 심사 까다로워져

미국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대구에 한해 국무부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했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 자체에 대한 여행 경보는 3단계 '여행 재고'를 유지했지만 미국행 여행객에 대한 의료 검사 강화를 주문해 출국 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국무부는 여행금지를 권고하는 4단계 경보지역으로 대구를 특정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자체는 3단계로 유지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개인들의 의료 검사를 조율하기 위해 국무부가 양국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거론된 입국금지 문제는 이날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fax numbers.

백록담



현영중 부국장 겸 편집부장

'메르스 교훈' 벌써 잊었나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 일본 미야기현 동쪽 100km 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최고 43m 높이의 초대형 쓰나미(지진해일)를 불러 왔다. 쓰나미로 1만5894명(미야기현 9541명)이 사망하고, 2553명이 실종됐다. 대피 생활 중 숨진 이들을 합치면 2만2000명에 육박한다. 건축물 붕괴·반파 40만여채, 농지피해 2만1000여ha, 어선피해 2만8000여척 등 경제적 피해도 엄청났다.

이 공항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후다이마을은 1126세대, 2646명이 거주하며, 어업이 주된 소득원이다. 최고높이가 22.5m에 이르는 쓰나미가 덮쳤지만 실종자 1명과 어선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피해가 없었다. 수문과 오타나베 방조제 덕분에 이다.

높이 15.5m, 폭 205m의 수문과 높이 15.5m, 폭 155m의 방조제는 1984년 완공됐다. 일본정부와 이와테현청의 지원을 받아 모두 36억엔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 수문건설을 주도한 이는 와무라 고토쿠 총장이었다. 쓰나미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함이었다.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1896년, 1933년의 쓰나미에서 얻은 교훈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다. 작은 마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었기에 오히려 많았다. 총장이 뒷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어떤 이들은 마을 전

체가 이사 갈 수 있는 돈이라며, 차라리 마을을 옮기자고 비야냥 거렸다. 당시 '관리장성'으로 불리우던 같은 현의 미야코시 방조제(10m)보다 5.5m나 높았기 때문이다. 후다이마을과 인접한 다노하타 마을은 8m 높이의 제방을 2개나 쌓았지만 쓰나미를 견디지 못해 46명의 피해자를 내고 500여채의 가옥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미야코시의 방조제도 유실돼 수백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우리나라를 덮쳤다. 첫 확진자 발생 후 2개월 만에 186명에게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38명이 숨졌다. 발원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는 6개월 이상의 작업을 거쳐 백서를 내놨다. 두 백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초기대응 실패 ▷컨트롤타

워 부재로 인한 리더십 혼란 ▷역학조사관 등 방역 인력 부족 ▷불안감만 키운 대국민소통방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내에서 확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지난 29일 기준으로 3000명에 육박한다. 사망자만도 16명에 이른다. 이제 대구·경북을 넘어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경남·충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행히 제주는 확진자가 2명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의 단일한 대처와 우왕좌왕 대책,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부른 비극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병난(病亂)'을 이겨내야 한다. 더불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쓰나미와 메르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열린마당

기초질서는 우리동네가 먼저



한경훈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건물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을 관리해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되고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 기초질서기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3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 환경질서, 교통질서, 도로질서 확립을 선전해 불법

쓰레기 배출 행위, 불법 주·정차 행위, 물건 적치 행위 등 근절을 실천하기 위한 중점 지도단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가지역의 가게 앞 에어라이트 등 생계형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또 도로적치물 철거로 인한 이면도로 양쪽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및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질서가 바로선 우리동네 만들기'를 추진해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동에서는 교통, 환경, 도로분야별로 민간단체를 지정, 연말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3월부터 취약지역에 대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클린하우스 내 가림막, 화단 등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인 건수로3길에 대해 일방통행을 시민주도 사업으로 추진해 기초질서가 바로선 우리동네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미세먼지의 위협과 스마트한 대처법



양근혁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019년 3월 5일은 화요일 먼지에 가려 평소엔 잘 보이던 한라산이 아예 보이지 않았고 숨쉴 땀 퀴퀴한 먼지 냄새까지 느껴지던 날이었다. 이 날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이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PM2.5(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약 50µg/m³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한다.

미세먼지란 직경 10µm(0.01mm) 이하의 대기중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를 말한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µm이하의 더 작은 크기의 입자인데, 대부분 사업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공해물질과 뒤섞인 경우가 많다. 초미세먼지가 특히 건강에 위협적

인 이유는 폐 내부로 들어오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의 형태로 녹아 폐포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해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선 PM2.5(초미세먼지) 농도가 5µg/m³ 증가시 조기사망률이 7%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우선 발생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공해물질 저감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올해는 다행히 지자체에서 설치비의 대부분을 지원한다. 또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경유자동차 등은 저감장치를 달거나 자동차 재구매 시 전기자동차 등으로 구매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차량 2부제(짝·홀수 운행)와 대중교통 적극 이용에 동참 노력도 필수적이다.

미세먼지의 위협에 스마트하게 대처하려면 내부 발생량은 줄이고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민·관의 일체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listed.

Advertisement for Grand Protection (그랜드보청기) featuring a hearing aid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Jeju Telecom Infrastructure Construction (제주 통신기반 구축) by Hanra Teleset.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티엔정보기술) showing services and contact info.